

시진핑의 외교정책과 아시아 신안보관

진창룡 (金灿荣)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I. 외교가 전체 국가정책에서 차지하는 지위의 변화

1. 외교가 정책 의정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격상되었다. 2013년 1월 28일, 시진핑 하의 새롭게 출범한 정치국이 제 3차 集体学习에서 논의했던 것은 바로 외교와 관련된 의제였다.
2. 시진핑은 외교부에게 더 높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것은 “중국의 기회가 세계의 기회가 되게 하고, 세계의 기회가 중국의 기회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다.
3. 시진핑은 외교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2013년 3월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정식 취임한 이래 전 세계의 여러 국가를 방문하였다.

II. 전략과 책략의 구분

시진핑은 여전히 덩샤오핑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것은 “도광양晦 (韬光养晦 - ‘재능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를 말한다. 그 증거로 중국은 여전히 최대의 개발도상국가이며, 발전은 중국의 중요한 의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책략은 “적극적인 유소작위 (有所作为 -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는 뜻)” 따르고 있다.

III. 책략의 형태

1. 외교정책결정에 관한 권력을 집중시켰다. 그 증거로 제 18차 3중전회에서 합의한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2014년 4월 15일에 개최한 제 1차 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총체적 안보관”을 내세웠으며, 그것은 11가지의 안보영역을 포괄하였다.
2. 기존의 전통으로 고수해오던 ‘수동적 외교’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외교로 변화시켰

다. 그리고 많은 수의 외교 이념과 정책을 제창하였다. 그 예로써 중국의 꿈과 세계의 꿈을 서로 연관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인류공동운명체, 아시아운명공동체, 중국-ASEAN 운명공동체의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밖에 확고한 의리관(义利观), 친선혜용의 이념(亲诚惠容 - '친밀하고, 진실되며, 자애롭고, 관용적'이라는 뜻), 총체적 안보관, 아시아 신안보관, 새로운 해양관, 경제 분야의 실크로드 구축, 해양에서의 실크로드(一带一路 - '하나의 로드, 하나의 벨트'라는 뜻), 3대 은행 건립(브릭스 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상하이 협력기구 은행), 신흥 강대국 관계 등이 있다.

3. 외교에 있어서 마지노선을 긋고, 그것을 수호한다. 즉, 국가의 핵심이익을 수호한다는 뜻이다.
4. 외교는 전면적(중국어로는 '전방위적')인 성격을 띤다.
5. 외교에 있어서 시진핑 개인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다.

IV. 정책적 특성

1. 세계 3대 강대국(미국, 러시아, EU)과의 관계를 안정시킨다.
2. 중국에게 유리한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중국 외교 전체에서 주변국 외교의 위치를 격상시킨다.
3.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담당한다. 이것은 단지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커져가는 해외에 존재하는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의미한다.

V. 아시아 신안보관

2014년 5월 20일, 상해에서 제 4차 "아시아 신뢰 회의 (아시아 상호 협력 및 신뢰 구축 회의)"가 열렸다. 개회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 신안보관을 주창하였다. 그는 아시아 신안보관을 주장함과 동시에, 공동안보, 종합안보, 협력안보와 지속가능한 안보를 제시하였다. 또, 적극적으로 아시아의 안보에 있어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적극적으로 구현해보자고 주창하였다.

그리고 서방 언론은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현실주의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그러나 중국 관방 측의 주장에

의하면, 아시아 신안보관의 기초는 중국의 "화(和)의 문화(和文化)"이며, 이것은 서방의 자유주의적 국제관과 일맥상통한다.¹⁾

"아시아 신안보관"은 1950년대에 이미 중국과 인도가 공동으로 제시한 "평화공존"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발전된 개념이다. 이 모든 개념의 핵심은 중국의 "화(和)"의 문화이다. "화(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사상은 천인합일의 우주관이자, 여러 국가들과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나가자는 국제관이며, 화이부동(和而不同 - '남과 사이 좋게 지내되 의를 굽혀 좇지는 아니한다는 뜻으로, 곧,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의 뜻)의 사회관이고 인심화선(人心和善 - '온화하고 자애롭다.'라는 뜻)의 도덕관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아시아 신안보관"을 구성하는 초석이며, 그 초석이 튼튼해야 비로소 아시아인들은 침착하게 아시아 공동의 안보를 의제로서 논할 수 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주체적 태도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공통의 종합적인 안보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다룰 안보 이슈는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비전통 안보문제인 경제안보, 문화안보 등을 포괄한다. 그리고 중국의 "화(和)"의 문화는 아시아 안보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협력적 안보 틀의 초석을 다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동의 안보는 각 국가의 안보를 존중하며, 보장한다. 안보는 보편적으로 수호되어야 한다. 즉, 일부 국가의 안보는 보장되나, 다른 국가의 안보는 보장되지 않으면 그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더욱이 자국의 절대적인 안보 보장을 위해 타국의 안보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카자흐스탄의 한 속담에서 말했듯이, "남의 등불을 꺼지게 하려고 입김을 불다가, 자신의 수염도 태우게 되는" 형국이 초래될 수 있다.

안보는 모든 국가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각 국은 모두 공평하게 지역 안보관련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각 국은 역시 모두 지역 안보를 수호할 의무를 갖고 있기도 하다. 어떠한 국가도 지역 안보를 농단하거나, 타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총체적 안보, 이것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총괄한다. 여기서 "총체적"이라는 것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모두 수호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또한, 극도로 민감한 이슈도 존재하며, 민족적, 종교적 갈등도 존재한다. 그 밖에 테러리즘, 국제범죄, 환경문제, 인터넷 안보, 에너지 안보, 자연재해

1) 亚信峰会推动“亚洲新安全观”，新华网 [引用日期2014-05-19]

등의 심각성과 그들이 지역안보에 가하는 위협의 정도는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통적 안보위협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서로 교차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인들은 서로 힘을 합쳐 아시아의 여러 분야에 존재하는 안보 문제의 역사와 현실을 모두 고려하여,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협력안보. 힘은 단지 하나의 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결을 할 때에 나오는 것이다. 협력이라 함은, 대화를 통해서 각 국가가 지역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깊고도 진실된 대화를 통해 상호 의심을 감소시키며, 믿음을 증진시키고, 일치되는 의견은 취하나, 불일치하는 의견은 보류시키고, 이렇게 하여 화목하게 공존한다.'는 정신에 기반 한다. 각국은 공동 안보 이익을 고려하며, 민감성이 낮은 이슈에서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현하여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협력의 영역을 넓혀나가며, 협력의 방식에서 있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평화를 일구어가는 것이다. 이에 평화로운 분쟁의 해결방식은 지지되어야 하며, 타국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분쟁을 일으키고, 타국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안보. 발전은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열쇠이다. '지속가능한 안보'는 발전과 안보를 모두 중시할 때 가능하다. 발전은 안보의 기초이며, 안보는 발전의 조건이다. 이는 "척박한 토지에서 튼튼한 나무가 자랄 수 없으며, 도처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발전할 수 없음"과 같은 이치이다. 아시아의 각 국에 있어서 발전은 최대의 안보이슈이며, 동시에 아시아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열쇠이다. 따라서, 아시아의 안보를 위해 우리는 발전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을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이 안보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초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